

# 釋迦塔本「無垢淨光經」經板의 復原 檢討\*

A Study on the Wood Blocks of *Mukujungkwangkyung*(無垢淨光經)  
from Sukka-tower

宋 日 基(Song, Il-Gie)\*\*

## ◁ 목 차 ▷

- |             |             |
|-------------|-------------|
| 1. 緒 論      | 3. 譯者表示의 檢討 |
| 2. 刻板方式의 檢討 | 3.1 보수현상    |
| 2.1 보수상태    | 3.2 실례검토    |
| 2.2 실례검토    | 4. 結論 및 提言  |
|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연구는 석가탑 출토의 「무구정광경」의 각판방식과 권수부분의 형식을 고찰하여 향후 경판을 복원함에 있어 기초적 고증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략 길이 60cm, 넓이 30cm 정도의 목판 2판이 소용될 것이며, 경판의 앞뒤로 각각 3면씩 모두 12면을 판각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구정광경 이 석가탑에서 수습된 이래 대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이 불경의 형태적 특징을 언급하면서 대부분 '譯者名' 또는 '漢譯者名'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단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국내 전본의 왕궁탑본 <金紙金剛經> 등 4종의 실물자료의 실례를 살펴 본 결과, 이 불경에는 본래부터 '譯者表示'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要語: 무구정광경, 석가탑, 각판방식, 역자표시, 금지금강경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BK(핵09A4106) 지원금에 의해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09년 5월 31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1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8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method of restoring Sutra wood blocks by studying the techniques of engraving on the wood blocks and the style of a head of *Mukujungkwangkyung*(無垢淨光經) found in the Sukka-tower. It is proposed that to restore wood blocks, two pieces of wooden blocks which measure 60cm by 30cm are needed, and three pages can be carved on both sides of each block to produce a total of 12 pages.

Also, since the discovery of *Mukujungkwangkyung* from the Sukka-tower, many researchers, referring to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is sutra, inferred that 'name of a translator(譯者名)' or 'name of a translator in classical Chinese(漢譯者名)' was written. However, based on the examination of four other existing resources, including Wanggung-tower *Gold-paper Diamond-sutra*(王宮塔本 金紙金剛經) transmitted to Korea, it can be concluded that 'name of a translator in classical Chinese' was originally not included in *Mukujungkwangkyung*.

Key words: Mukujungkwangkyung, Sukka-tower, Translator, Gold-paper Diamond-sutra

## 1. 緒論

지난 1966년 10월에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수습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무구정광경」으로 약칭)의 출현은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지 못한 까닭에 많은 논란이 예고되었다. 그것은 이 불경의 어디에도 간행연대를 밝힐 수 있는 기록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구정광경」은 오랜 우습으로 인해 파손된 상태로 석탑에서 수습된 이후 완전한 보존 처리를 하지 못한 채 20여년 동안 국립박물관에 특별 보관되어 왔다. 그 후 1989년에 일본측 보존 전문가에 의해 원형에 근접한 보수가 완료되어 비로소 그 전모를 상세히 검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보수 이전에는 동국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영인본에 의거하여 연구하였다. 그런데 보수 이후에 동국대 영인본에서 볼 수 없었던 권수의 경계(經題) 일부가 새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중요한 형태적 요소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 보수된 원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간행연대를 추정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과정에 전준훈 등 일부 중국측 학자들 사이에서 석가탑본 「무구정광경」이 중국의 낙양에서 간행되었다는 역설이 등장하여 한동안 논란이 되었다가 잠복한 상황에 있다.

한편 최근에 이 불경이 출토되었던 석가탑에서 함께 수습되었던 필사 종이 뭉치의 보존처리가 완료되어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그 동안 금기되었던 중수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라왔다. 그런데 판독 결과 고려 초기에 중수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또 다시 간행시기 및 납탑 대상석탑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대체로 석탑의 초건 때 납입된 것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그 동안 석가탑본 「무구정광경」에 대한 연구나 논의의 내용이 주로 간행 시기 및 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작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무구정광경」을 인출한 경판의 각판방식이나 일실된 권수의 형식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논급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실물자료가 출현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경관의 일면을 살펴 본래의 원형을 재현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되었다.

이에 필자는 경관의 각판방식과 함께 차체에 오랜 과제로 남겨 놓았던 일실된 권수(卷首)의 형식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권수 문제의 결과에 따라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불경의 권수는 ‘經題’ 및 ‘譯者表示’가 기입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불경의 경제는 1989년의 보수 결과 끝부분 ‘尼經’ 2자가 복원됨으로써 권말제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 문제는 경제 다음 행에 과연 재조대장경에 보이고 있는 ‘唐天竺三藏彌陀山奉詔譯’이란 ‘역자표시’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sup>1)</sup> 만일 ‘역자표시’가 들어 있다면, 이 불경은 고려시대 11세기 이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고 만일 ‘역자표시’가 들어 있지 않다면, 이 불경은 석탑의 건립 이전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석가탑본 「무구정광경」이 석탑 건립 이전 시기에 간행되었다는 결론을 전제로, 그 전후시기에 국내에서 필사 또는 간인(刊印)된 실물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역자표시’의 유무(有無)를 밝혀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석가탑본 「무구정광경」 경관의 복원에 반영되어지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

1)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1966년에 수습된 「무구정광경」은 권수의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후 이홍직의 논문에서 이 석가탑본의 일실된 부분을 재조대장경에 들어 있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서 전체해 놓은 이래로 지금까지 이 불경에 대해 형태서지적 특징을 언급한 대다수 연구자는 ‘譯者名’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하여 마치 본래부터 ‘譯者’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고 있다. 李弘植, “慶州佛國寺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4집(1968), 174.

## 2. 刻板方式의 檢討

### 2.1 보수상태

현존 최고의 목판인쇄물로 알려진 「無垢淨光經」은 1966년 10월 13일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제2층 탑신부 사리공에 봉안되어 있던 금동제 사리외함(舍利外函)에서 다른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와 함께 발견 수습되었다.<sup>2)</sup>

수습 당시의 상태는 석탑 속에서 봉안된 이후 오랜 우습(雨濕)으로 부식과 충식이 생기고 심한 산화작용으로 부스러져 제1장의 경제(經題)를 비롯하여 본문 11행 정도의 경문이 완전히 일실되었다. 그리고 제7장에 이르는 본문이 5내지 6cm의 일정한 간격으로 2행 정도의 경문이 일실되어 있으며, 그 이하 제10장까지도 본문 하단에 경문 일부가 훼손이 계속되다가 제11장 이후 비로소 완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습 이후 이 다라니경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위탁하여 특별 관리해 왔으나,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의 보존기술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보존처리할 것을 의결하여 이를 일본의 보존 전문가에 의뢰함으로써 1988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5개월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다. 다행히 보수 결과, 원형의 면모를 되찾고 떨어진 조각의 일부를 맞추어 권수부분의 잃어버린 본문 11행 중 4~10행의 일부분이 복원되었다.

이 불경은 모두 12장을 이어 붙인 권자본으로 구겨진 종이를 펴고 부스러진 조각을 찾아 복원한 결과 전체 길이가 641.9cm로 계측되었으며, 복원 후 직경 4cm의 붉은 나무 축에 말아 놓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상하간의 폭은 6.5~6.7cm인데, 인쇄된 상하 변란의 크기는 5.3~5.5cm이며, 각 행의 자수는 6내

2) 석가탑본 무구정광경을 포함하여 사리유물의 초기 수습경위 및 과정에 대해서는 정영호 등이 쓴 「佛國寺三層石塔 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에 관련 사진자료와 함께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지 9자로 배자되어 있다. 복원 후 1999년에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영인하여 보급한 바 있는데, 그 해제에 전체 12장의 행수 및 크기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제시되었다.<sup>3)</sup>

<표 1> 수리 후 각장의 크기

張次	行數		크기	
	문화재청	박상국*	문화재청	박상국*
제01장	54행	56행	54.7cm	56.8cm
제02장	55행	55행	53.7cm	53.8cm
제03장	55행	55행	53.0cm	53.2cm
제04장	57행	57행	52.9cm	52.9cm
제05장	56행	56행	54.6cm	54.5cm
제06장	62행	62행	55.2cm	55.1cm
제07장	61행	61행	54.3cm	54.3cm
제08장	59행	59행	55.7cm	55.6cm
제09장	60행	60행	55.0cm	55.0cm
제10장	63행	63행	54.5cm	54.2cm
제11장	61행	61행	54.3cm	53.9cm
제12장	38행	38행	44.0cm	43.9cm

\*朴相國,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대해서, 文化財 제3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370.

위의 <표 1>은 1989년 5월에 수리가 완료된 이후 문화재청과 박상국에 의해 계측한 각 장의 크기와 행수를 정리한 표인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크기를 살펴보면 제1장이 가장 긴 56.8cm이며, 제12장이 짧은 43.9cm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행수는 제10장이 63행으로 가장 많고, 제12장이 38행으로 가장 적은 상태이다. 이처럼 경문의 수록 내용이 적어 가장 크기가 작은 제12장을 제외한 제1장에서 제11장까지의 평균 크기는 54.48cm이며, 행수는 58.6행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경제를 포함하여 경문 제1행 사이의 ‘譯者表示’가 있었는가가 문제가

3) 문화재청 발행의 영인본 해제에 제시된 규격은 보수 후 岡墨岡堂이 계측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보고서에서 그대로 전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岡墨岡堂, “無垢淨光大陀羅尼經 修理報告書,”(1989), 20-21.

다. 이는 역자표시의 여부에 따라 크기와 행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행시기의 추정과 향후 복원에 있어 중요한 검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 2.2 실례검토: 보광사본 「寶篋印陀羅尼經」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최고의 목판은 1219년에 판각하여 부석사에 수장되어 있는 <冊曆板>(2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고려시대 초기 경판으로는 해인사 판전에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신라시대의 목판의 모습을 알 수 없으나, 최근 안동의 보광사 아미타불좌상의 불복에서 수습된 복장유물 고려 초기 다라니경에서 그 실마리나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보광사의 불복장품에는 제책되지 않은 낱장 상태의 「寶篋印陀羅尼經」 23장이 발견되어 원판(原板)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07년 안동의 보광사에 봉안되어 있는 13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고려시대 간행된 교장 잔편과 「보협인 다라니경」 등 다양한 불교전적 7종이 포함된 복장유물이 수습되었다.<sup>4)</sup> 이 중 「보협인 다라니경」은 이미 40년 전에 김완섭(金完燮) 소장본 중에 발견되어 학계에 소개된 것과 동일한 판본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김완섭장본은 학계에 소개된 이후 현재는 그 행방이 묘연한 실정이었는데, 금번 안동 보광사의 불상에서 동일한 경판에서 인출된 판본이 출현한 것이다.

그런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5년에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조사 일환으로 발행한 「오구라컬렉션 한국문화재」에 김완섭본과 동일한 판본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구라(小倉)도 입수해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김완섭본 사진과 오구라본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양본의 권수(卷首) 간기면 위쪽의 천두(天頭)부분의 훼손 상태와 변상도의 좌측 상단부분의 완결상태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혹 김완섭본이 오구라에게 양도된 것은 아닌가도 생각된다.<sup>5)</sup>

4) 서병패, “安東 普光寺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典籍 研究,” 「聖寶」 제10호(2008), 5-27.

이처럼 국내에는 40여 년 전에 잠시 소개된 이후 그 행방이 묘연했던 총지사에 서 간행된 「보협인다라니경」과 동일한 판본이 근래 안동의 조그만 사찰 보광사에 봉안되어 있는 관음상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장쾌한 흔적이 전혀 없이 경판에서 막 인쇄한 상태로 발견되어 복장품의 충진을 목적으로 납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다라니경은 모두 23장이 수습되었는데, 변상도가 들어 있는 앞부분은 3장이며, 그 나머지 20장은 뒷부분에 해당된다.

명칭	수량	크기	시대	특징
寶篋印陀羅尼經	23장	外: 46.8×32.7cm 內: 45.8×5.2cm	統和25(1007)年 刻板에서 13세기 전반 後印	粘連한 종이에 2-3면씩 印出

인쇄 상태는 오구라본에 비해 월등 조잡한 편으로 불복의 충진을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급하게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인쇄에 사용된 종이가 보광사 불복에서 함께 수습된 원주형 <대수구타라니(大隨求陀羅尼)>를 찍고 남은 종이를 점련(粘連)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인쇄에 사용된 먹물 역시 농도가 연한 상태로 인출되어 글자면이 선명치 못하고 자획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복각이 아닌가도 생각되나, 오구라본과 자세히 비교해 보면 동일한 목판에서 인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인쇄상태에 완결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인출 당시에 복각한 경판이라면 오히려 이러한 완결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5) 이에 대해 천혜봉 선생의 논문에 김완섭의 傳言을 기록한 내용 중에 “또한 舍利外盒內에는 본시 金佛像도 並藏되어 있었으나, 선생(김완섭)이 入手하시기에 앞서 일본인 小倉氏의 手中으로 넘어 갔다고 하니 참으로 可惜한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千惠鳳, 高麗初期刊行의 寶篋印陀羅尼經, 圖書館學報 (서울: 중앙대 도서관학과) 第2輯, 1973. 2). 이 내용으로 보아 복장유물은 김완섭의 구입에 앞서 소창이 먼저 살펴보았을 것이며, 이 불경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경박물관 소장의 소창본은 천혜봉 선생이 상기 논문에 수록한 사진(p.6)과 이를 김두중 선생에게 제공하여 『韓國古印刷技術史』에 실려 있는 사진(附圖中-2)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창본을 포함하여 적어도 2부 이상이 현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천혜봉 선생은 일제시대 유출된 것으로 東京의 上野博物館에 수장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광사에서 수습된 이 「보협인다라니경」은 모두 5면으로 판각하여 인출되어 있으며, 각 장의 길이는 대략 46cm 전후이다. 특히 제5면의 권수부분의 중앙에 ‘五’라는 숫자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 면의 권수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판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인출 후 점련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나 소창본의 점련부분에 이 표시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황할 때 이 부분은 잘라낸 것이 아닌가 한다.

다라니경의 한 장에는 경문의 앞쪽 내용이 3면으로 수록되어 있고, 다른 한 장에는 경문의 뒤쪽 2면이 인쇄되어 있다. 이러한 인쇄상태로 보아 상하 간의 판고가 5.2cm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판 한판의 앞면에 3면과 뒷면에 2면을 판각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한 장에 인쇄된 3면과 2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각 장의 3면의 폭이 19cm, 2면의 폭이 14cm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판에 판각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면에 3면을 후면에 2면을 새겨 「보협인다라니경」의 전체를 단지 한 장의 목판에 판각할 수 있어 여러 사찰로 편리하게 이동하여 신속히 인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사진 1 참고).

이상과 같이 「보협인다라니경」은 한 장의 목판 앞뒤로 경전의 전문을 수록하여 판각되어 있다. 따라서 「무구정광경」은 목판의 상하 폭이 「보협인다라니경」과 비슷하여 이와 동일한 형태로 각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보광사본 「보협인다라니경」의 판각방식을 준거로 「무구정광경」의 판각방식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석가탑본 「무구정광경」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어, 이 경우 앞뒤에 3면씩 판각한다면 대체로 길이 60cm 정도의 목판 2판이 소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한판에 3면씩이 각판되어 있어 한번에 3장씩 매우 빠르게 인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탑에 많은 부수의 다라니를 납탈하기 위해서는 인출 속도가 신속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요건과도 부합되는 각판방식이다.

### 3. 譯者表示의 檢討

#### 3.1 보수현상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1966년에 발견된 「無垢淨光經」은 전체적으로 제1장에서 제7장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상당히 부식되어 있으며, 온전한 부분은 제11장과 제12장 2장에 불과한 상태로 수습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에 전면적인 보존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그 결과 제1장의 경계를 포함하여 8행정도가 새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경계(經題)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 가운데 「尼經」 2字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나, 이 불경은 단권본으로 별도의 품명(品名)과 품차(品次)는 없다. 그런데 현재 보존 처리되어 있는 상태가 권두서명인 경계 다음 행에 「譯者表示」 부분을 옆두에 둔 듯, 본문의 제1행과 약 0.5cm 가량의 공간이 더 여유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무구정광경」이 석가탑에서 수습된 이후 최초의 공식적 발표인 이홍직의 논문에서 석가탑본의 일실된 부분을 재조대장경에 들어 있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서 전제해 놓았는데, 여기에 문제의 「譯者表示」도 그대로 전제되어 있다.<sup>6)</sup>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 다라니경의 형태서지적 특징을 언급한 연구자는 대부분 「譯者名」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하여 마치 본래부터 「譯者」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석가탑본에는 본래 「역자표시」가 들어 있었을 것인가.

#### 3.2 실례검토

##### 3.2.1 왕궁탑본 「佛說金剛般若波羅密經」(7세기전반)

왕궁탑 출토의 금강경은 백제 무왕시대에 은에 순금을 도금한 재료를 펼쳐

6) 李弘植, “慶州佛國寺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4집(1968), 174.

종이처럼 만들어 뒷면에서 각필(角筆)로 눌러 쓴 사경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지정 명칭인 <金製金剛經版>과는 달리 <百濟金紙角筆金剛寫經>으로 명칭한다. 이 유물은 전라북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 봉안되어 있다가 1965년에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불경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을 사성한 육조사경을 저본으로 금지(金紙)에 눌러 쓴 19장으로, 다른 사리장치와 함께 국보 제123호로 일괄 지정되어 현재 국립전주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금강경의 제작 방식과 관련하여 일본 경도의 청린원에 소장되어 있는 「觀世音應驗記」의 부록에는 백제 무왕 즉위 초기에 제석사의 7층목탑에도 동지(銅紙)에 쓴 <금강경>을 봉안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 바 있다.<sup>7)</sup> 이처럼 제석사탑 심초석에서 봉안되었던 <금강경>은 “동지(銅紙)에 쓴 금강경(以銅作紙, 寫金剛波若經)”으로 기록하고 있어, 백제시대 납탑의 대상 불경과 왕궁탑본의 제작방식 및 재료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왕궁탑 인근의 제석사탑에 봉안된 불교경전이 금강경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금강경은 동(銅)으로 만든 종이에 사경했다는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종이의 재료인 동(銅)은 고대에서는 금(金)으로 통칭되었던 사실로 보아 상호간에 친연성이 강하다.

그런데 종래 학계에서는 <金製金剛經版>의 제작방식에 대해서는 목판에 경문을 새겨 압출(押出) 방법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돋움체 형식의 글자면이 주는 입체감을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오히려 얇게 펼쳐 종이처럼 만든 금종이의 뒤쪽에서 각필로 눌러 쓰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8)</sup> 이러한 제작방식은 「관세음응험기」의 기록과도 합치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앞면의 돋움체 경문은 마치 붓으로 쓴 듯한 자연스러움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굳이

7) 이 자료는 牧田諱亮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어 주목되었으며, 필자도 권말에 부기된 2조의 <百濟記事>를 검토한 바 있다. 宋日基, “京都 青蓮院藏 《觀世音應驗記》所收 <百濟記事>의 檢討,” 『書誌學研究』 제30집(2005. 6), 129-149.

8) 宋日基, “益山 王宮塔 出土 <百濟金紙角筆 金剛寫經>의 研究,” 『馬韓·百濟文化』 제16집(2004. 12), 147-183.

목판으로 눌러 찍었다면, 앞쪽 글자면의 돌출 부분이 입체감이 없이 평면감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글자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뒷면에서 눌러 쓸 때 힘이 주어진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온 듯한 곳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으며, 간혹 각필이 미끄러져 자형에 균형감이 상실된 곳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체(字體) 상에 중첩되어 나타난 면을 보면, 처음 쓰여진 자획을 뒤에 쓴 자획이 누르고 나타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왕궁탑 금강경에 나타난 서체의 특징을 보면, 중국의 육조사경을 저본으로 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전반적인 서체의 특징은 다분히 사경체(寫經體)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경체의 특징자로 ‘願·能·勝·定·正·足·无·因’ 등이 여러 곳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중국 당나라 사경의 서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고졸한 필의(筆意)를 보이고 있는 ‘剛·非·亦·得·就’ 등의 특이자(特異字)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이자는 육조(六朝)시대의 사경 및 석각자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왕궁탑본 <금강경>의 서체는 중국의 사경체가 완전히 고정화되기 전 단계에 볼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다분히 수당 이전의 육조풍의 필의(筆意)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여러 특징을 종합해 보면, 왕궁탑 금강경은 남조 양나라로부터 입수된 사경을 저본으로 백제 무왕 연간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9)</sup>

왕궁탑에서 수습된 <金紙金剛經>은 비파괴 분석결과 은판(銀版)위에 수은아말감 기법으로 순금을 도금한 재료로 판명되었으며,<sup>10)</sup> 이를 종이처럼 만들어 그 뒷면에서 글씨를 눌러 쓴 것으로 모두 19장으로 되어 있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

9) 지난 2009년 1월 19일에 익산의 미륵사지에서 서석탑의 해체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하단부 중앙의 심초석에 들어 있던 사리장치가 수습되었다. 이때 수습된 사리유물에는 <사리봉안기>가 발견되어 백제 무왕 재위 639년에 사리가 봉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륵사 사리기의 문양과 동일한 형식으로 보이는 왕궁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기의 문양이 백제 무왕 때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앞서 발표된 바 있다. 한정호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舍利莊嚴具의 編年 再檢討 金製舍利內盒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3호(2005).

10) 유혜선, 이영범, “국보제123호 왕궁리5층석탑 출토 사리기 성분분석 연구,” 『제23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06), 104.

면, 금지(金紙)의 크기는 대략 세로 17.4cm 가로 14.8cm이며, 각 장은 모두 17행으로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금지는 일반적인 종이 사경에서 보이고 있는 형식과 동일하게 사주(四周)를 가는 선으로 긋고, 다시 그 안에 사란을 각필로 그어 구분하였으며, 한 행의 폭은 대략 1cm 남짓하다. 이에 따라 자경(字徑)은 6-7m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육조사경 형식을 준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장의 금지는 절첩(折帖)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장마다 왼쪽 끝 부분을 가로 크기 만한 금실(金絲)을 넣어 말아 놓고 상하 끝 부분의 두 곳에 대략 1.5cm 크기 금판을 덧붙여 그 위에 두 곳에 구멍을 뚫어 금실로 묶어 좌우를 연결하였다. 그리하여 전체를 한 면의 크기로 접어놓고, 이를 금대(金帶) 2조로 묶어 장방형 금동내함(金銅內盒)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이 내함은 다시금 장방형 금동외함(金銅外函)에 넣어 석탑 안에 봉안하였다. 금판경의 자체는 돌움체로 경문이 쓰여져 있다.

그리고 권두서명은 ‘佛說金剛般若波羅蜜經’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에 바로 ‘如是我聞...’으로부터 경문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불교 경전은 일반적으로 경제와 경문의 제1행 사이에 해당 불경을 한역(漢譯)한 ‘譯者表示’가 기입되어 있는데, 왕궁탑본 <금강경>에는 역자표시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권수의 경제에는 ‘佛說’ 2자가 관칭(冠稱)되어 있으며, 권말의 경제 역시 권두서명과 동일하게 ‘佛說’ 2자가 들어 있다. 이러한 서명은 다른 판본에서는 볼 수 없으며,<sup>11)</sup> 다만 8세기 초 이전에 새겨진 방산석경본과 초기 돈황사경 등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미 6세기에 중국의 양나라에서는 ‘佛說’이 관칭된 <금강경>이 100부나 사경으로 제작되었다는 실물자료로 보아,<sup>12)</sup> 아마 경전의 권위를 돋보이기 위해서 초기의 사경일수록 ‘佛說’을 첨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제

11) 다만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 충렬왕 31(1305)년에 청주의 원흥사(元興社)에서 간행된 판본의 권말제에 ‘佛說’ 2자가 보이고 있다.

12) 중국의 양나라에서 535(大同元年)년에 사성된 사경의 조성기에는 “大同元年正月一日 散騎常侍淳□□□□於芮芮 願造 ‘金剛波若經’一百卷□□□□/屆 梁朝謹本本誓以斯功畢普施□□□□/境”으로 기록되어 있다. 『台東區立書道博物館圖錄 (東京: 台東區藝術文化財團, 2000), 39. 磯部彰 編, 『台東區立書道博物館 所藏 中村不折舊藏禹域墨書集成』 卷上 (文部科學省科學研究費特定領域研究<東아시아出版文化研究>總括班, 2005. 142-143.

(經題)의 표기(標記) 형식은 왕궁탑본 <금지금강사경>의 성격을 규명하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상과 같이 왕궁탑 출토의 <금강경>은 은에 순금을 도금한 재료를 종이처럼 만들어 뒷면에서 각필로 눌러 쓴 금지사경이다. 왕궁 오층탑의 사리장치는 백제 무왕초기에 건립된 제석사 목탑에 납탑 봉안된 사리장치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금지각필금강사경>은 서체의 특징과 경문의 내용으로 보아 중국의 육조시대 사경을 저본으로 제작된 백제 무왕연간의 유물로 추정된다. 따라서 권수의 형식이 육조사경과 동일하게 ‘譯者表示’가 없음을 볼 수 있다.

### 3.2.2 신라 백지묵서화엄사경(755년)

본래 이 사경은 대전에 거주했던 윤사중(尹使重)이란 사람이 일제시대에 호남 지방에서 처음으로 입수하였다가, 그 후 경주에 사는 서성수(徐聖洙)라는 사람이 물려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도이다.<sup>13)</sup> 이를 1978년에 삼성문화재단에서 상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하여 현재는 리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가운데 권1에서 권10까지의 한 축은 불탑에서 나올 때부터 부식과 경화되어 내용을 볼 수 없었다. 대체로 권6까지 상단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었다. 그리하여 1988년 가을부터 다음해까지 일본 경도박물관 문화재보존수리소 강묵광당(岡墨光堂)에서 온 기술자에 의해서 해체 수리되어 전시하고 있다.

사경의 형태적 특징을 보면, 권수에는 ‘大周新譯大方廣佛華嚴經序’가 수록되어 있으나 서제(序題)와 제1행이 일실된 상태이다. 권1의 권두제는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卷一之一’로 되어 있었으나, ‘妙’자 이하 ‘嚴品卷一之一’가 결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권두제 아래에 ‘一’로 표기되어 있으나, 제2권부터는 ‘卷二’와 ‘新譯’으로 표기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 행에

13) 이러한 전언을 근거로 필자는 이 묵서사경이 본래 봉안되었던 곳을 화엄사의 <사사자삼층석탑>(일명, 세존사리탑)의 초층 탑신부로 지목한 바 있다. 宋日基, 『智異山 華嚴寺와 華嚴經』(전남대박물관, 2002).

는 ‘역자표시’가 없이 바로 ‘如是我聞’으로부터 경문이 시작되고 있다. 이처럼 화엄사경에는 ‘역자표시’가 없으며, 권두제 또한 한 행에 ‘經名+品名+品次’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표기방식은 물론 수당사경(隋唐寫經)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며, 국내에 현존하는 목판본의 경우 현재 성암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진본화엄경 권20>과 영광 불갑사에서 발견된 <묘법연화경 권3>은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변란은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오사란(烏絲欄)이며, 상하 사이의 높이는 20.3cm 전후이다. 수리 후의 크기는 대략 26.9×42.6-47.2cm인데, 맨 끝장의 길이만은 36.3cm로 다른 장에 비해 길이가 짧다. 권축을 포함한 총 크기는 29.4cm이며, 권축의 지름은 1cm 정도이다. 각 장의 행수는 48행부터 56행으로 되어 있으며, 한 행에는 34자씩 배자되어 있어 수당사경에 비해 2배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사경 2축에는 모두 권10과 권50의 뒷부분에 발원문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10권씩 8축으로 제본하여 각 축의 말미에도 발원문이 수록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발원문은 경주 황룡사의 연기(緣起)법사가 아버지의 은혜와 법계의 모든 중생이 모두 불도를 이루도록 발원하여 경덕왕 13(754)년 8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인 755년 2월 4일까지 6개월 14일이 걸려 완성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어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백지묵서사경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권말의 발원문을 통해 그 동안 불확실했던 화엄사 중창주인 연기조사가 경덕왕 때의 실존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려 이전에 쓰여진 사경이 극히 드문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고려 이전의 사경은 호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지묵서화엄사경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경주 기림사와 성암문고 등에 신라사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경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경의 사성한 연대가 755년으로 밝혀져 있고, 사경 참여자의 이름·출신지·역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더욱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본래 이 사경은 <新譯華嚴經> 80권 전권을 사성하여 8축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부분은

권1-10의 1축과 권44-50의 잔권(殘卷) 1축 등 모두 2축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백지묵서화엄사경>의 권두서명 역시 모두 ‘經名+品名+品次’의 형식으로 한 행에 기재되어 있을 뿐, 다음 행에 ‘譯者表示’는 보이지 않고 있다.

### 3.2.3 성암본 진본화엄경 권20(9세기)

성암문고에 소장된 진본화엄경(晉本華嚴經 卷20)은 통일신라 하대 9세기 무렵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목판본은 목판인쇄발달사에 있어서 본격적인 인쇄본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실물자료로 평가되고 있다.<sup>14)</sup>

성암본 화엄경의 형태적 특징부터 살펴보면, 먼저 외형적 특징은 권자본 형식으로 표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권두의 경제(經題)는 ‘大方廣佛華嚴經金剛幢菩薩十迴向品之七’로 되어 있으며, 권말제는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로 되어 있다. 성암본은 모두 18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의 본문은 10행까지로 끝나며 한 행을 비우고 권말제가 표기되어 있다. 지질은 저지로 황벽(黃蘗) 물을 들여 두드려 다듬질(搗砧)한 것으로 지금도 윤기가 남아 있으며, 팽팽하고 탱탱한 느낌을 주는 최상급의 종이로 평가된다. 발쪽은 없고 갈대(혹은 대나무) 발문은 보인다. 축봉(軸棒)은 현재는 없지만, 나무가 삭은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판식은 상하단변으로 본문은 한 장이 26행이며, 한 행은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다만 제1, 7, 8장만은 25행으로 되어 있어 1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장의 길이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26행의 장은 가로 28.0cm이고 세로 48.9cm인데 비하여, 25행의 장인 경우는 46.6cm에서 47.3cm 정도이다. 광고(匡高)는 20.1cm이며, 행간은 약 0.8cm 정도이고, 자경(字徑)은 1-1.2cm 정도이다. 각 장의 첫 머리 부분에 초조본에 보이는 판수제(板首題)나 권차와

14) 鄭在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제7집(2001).

장차 그리고 각수명 등이 보이지 않는다.

이 성암본 화엄경의 제1장의 제1행에는 ‘大方廣佛華嚴經金剛幢菩薩十迴向品之七’이란 권두제가 보이고 있으며, 모두 18자로 되어 있다. 그 때문에 경제의 글자 크기가 본문의 글자 크기보다 작게 기재되어 있으며, 더구나 권두제 아래의 공란에 ‘寸’이라는 표시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의 하변에 ‘雲龍’이 묵서되어 있는데, 아마 원래 소장자의 표시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 행에 보이는 ‘역자표시’는 <백지묵서화엄사경>처럼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다른 판본과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재조대장경의 동일 경전의 해당부분을 살펴보면, 권두제가 제1장 1행에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으로 되어 있어 ‘經名’만 보이며, 그 아래로 함차 번호인 ‘坐’가 표기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2행에는 ‘東晉天竺三藏佛跋陀羅 譯’이란 ‘역자표시’가 나타나고, 제3행이 품명인 ‘金剛幢菩薩十迴向品第二十一之七’로 되어 있는데, 성암본과는 품차(品次)에 있어서 ‘第二十一’라는 차이를 보인다.<sup>15)</sup> 성암문고에 소장된 진본화엄경 권20의 권두서명은 ‘經名+品名+品次’가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 이런 형식의 권두의 경제 기재형식은 상기의 백지묵서사경을 비롯하여 당말 이전의 사경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그리고 성암본 화엄경의 서체는 마치 붓으로 쓴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으

15) 그런데 권두서명에서 약간의 혼란상이 보이고 있다. 권두서명은 經名+品名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경명에는 권차표시가 없으며, 단지 품명만은 品數를 ‘品之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권두의 정보만으로는 경명의 차례를 알 수 없으며, 다만 卷尾題를 통해서 권수를 파악할 수 있다. 다른 경전에는 일반적으로 ‘之’ 앞에는 ‘상위개념의 숫자’표시가 보이고 있으며, 아니면 아예 ‘第’라로 표기되어야 마땅하다. 과연 再雕藏에 수록되어 있는 동일 경전에는 ‘之’앞에 ‘第二十一’이란 상위개념의 품수가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권미제의 권수 ‘二十’은 동일하다. 이처럼 권차와 품차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품차의 표기도 다른 경전의 표기 방식과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再雕藏 卷14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권14의 앞쪽에 있는 다른 품과 ‘金剛幢菩薩十迴向品第二十一之一’이 함께 수록되어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장경 판각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板刻大藏經 이전의 서명 형식은 다를 수가 있어 차제에 사경을 포함한 고대 서적의 서명 및 권차 표기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宋日基, “古代 동아시아 書籍의 卷頭事項 變遷考,” 文獻情報學報 제6집(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회, 2003. 11), 115-142. 참고.

며, 이러한 특징은 신라 사경과 직접적인 친연성을 보인다. 경문에는 ‘能·正·亦·无·願·足’ 등 특이자(特異字)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특이자는 「무구정광경」과 백지묵서사경을 비롯하여 수당사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송판대장경 개판 이전 시기의 실물자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성암본 <진본화엄경>은 늦어도 통일신라 후대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내 현전본 가운데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경」 이후로 가장 빠른 시기에 간행된 목판인쇄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성암본 진본화엄경(권20)은 서적사에 있어서 사본시대로부터 본격적인 인쇄본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간행된 중요한 실물자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진본화엄경>의 권두서명은 755년에 사성된 <묵서화엄경>과 동일하게 ‘經名+品名+品次’의 형식으로 한 행에 기재되어 있을 뿐, 경제 다음 행에 ‘譯者表示’는 보이지 않고 있다.

### 3.2.4 고려본 「보협인다라니경」(1007년)

이 불경은 인도의 불공(不空)이 772년에 한역하여 대장경에 편입시킨 밀교경전으로, 일체여래(一切如來)의 전신사리(全身舍利)의 공덕을 담은 다라니를 간행하여 불탑 속에 넣어 공양하면, 일체여래의 신력(神力)이 보호해주고 죄를 소멸하며 공덕을 쌓아 성불이 될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완전한 경명은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鍊印陀羅尼經)>이며, 이를 간략히 줄여 「보협인다라니경」이라 하며, 일명 「全身舍利經」으로도 알려져 있다.<sup>16)</sup>

일찍이 이 경전은 중국 오월(吳越)의 국왕인 전홍숙(錢弘淑)이 인도 아육왕(阿育王)의 조탑사적(造塔事蹟)의 전례에 따라 금·동·철로 조그마한 탑을 8만 4000개 주조하여 그 속에 이 다라니를 넣어 봉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16) 서명이 <全身舍利經>으로 알려져 있는 유물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출토되어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宋日基, “五臺山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出土 全身舍利經”의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311-325. 참고.

전홍숙은 956년과 975년 두 차례에 걸쳐 납탑공양(納塔供養)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간행된 다라니는 현재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10점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1007(統和 25)년에 개풍군의 총지사(攄持寺)에서 판각 간행되어 불탑과 불상에 납입된 이래로 다양한 형식의 다라니로 인쇄 또는 필사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유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다라니경은 본래 김완섭 소장으로 천혜봉 선생에 의해서 그 전모가 소개되어 널리 알려졌으나,<sup>17)</sup> 현재 그 소장처는 미상이다.<sup>18)</sup> 전체적인 판식의 특징은 석가탑의 「무구정광경 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권두에 수록된 지기(識記)에 의하면, 경기도 개풍군에 소재했던 총지사(攄持寺)에서 통화(統和) 25(1007)년에 간행된 절대연대가 확인된다. 본래 이 책은 독경용의 목적보다는 「무구정광경 처럼 석가탑 내에 안치할 의례용 다라니로 판각되었기 때문에 권수에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된 점을 제외하면 크게 다를 바 없다. 권수의 변상 다음으로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 2행으로 새겨져 있으며, 이어서 다음 행으로부터 바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 ‘譯者表示’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불경 역시 단권본으로 별도의 품명이나 품차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역자표시’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무구정광경」의 권수의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3.2.5 소형본 다라니경(고려-조선)

다라니는 우주의 실상(實相)에 계합하여 수많은 법문(法門)을 보존하고 있는

17) 千惠鳳, “高麗初期 刊行의 寶篋印陀羅尼經,” 『圖書館學報』(서울: 중앙대 도서관학과) 第2輯(1973). 1-47.

18) 오구라 소장본은 현재 일본의 국립동경박물관에 기증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최근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여 2005년에 발행한 도록에 그 사진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도록에 수록된 사진과 천혜봉의 최초 논문(1973)에 수록된 사진과는 권수의 <誌記> 부분의 상변 일부에 떨어져 나간 부분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1990년에 간행된 천혜봉의 『韓國典籍印刷史』에 수록되어 있는 「도판 14」의 사진에는 권수의 <誌記> 부분에 소장본과 동일한 위치에 떨어진 부분이 보이고 있어 김완섭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 판본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40년전에 이미 상태가 다른 판본 2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것으로, 하나의 다라니를 기억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연상하여 잊지 않게 하며, 선법(善法)을 가지게 되고 악법을 잘 막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외우고 그 문자를 관하면 그 진언에 응하는 여러 가지 공덕이 생겨나고, 세속적인 소원의 성취는 물론 성불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를 협의로 말할 때는 짧은 주문이 진언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다라니(陀羅尼)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소형본(小形本) 다라니경은 많은 불탑과 불상에 봉안하는 의식이 삼국시대로부터 발생되었다. 주로는 날장류가 많이 출토되었으나, 간혹 「무구정광경」처럼 소형 다라니경도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소형 다라니경이 「무구정광경」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보협인다라니경」을 제외한 「梵書摠持集」과 「佛頂心陀羅尼經」을 중심으로 역자표시의 유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 「梵書摠持集」

이 자료는 실담(悉曇)문자로 쓰여진 다라니의 모음이란 의미이다. 본래 총지(摠持)는 능지(能持)·능차(能遮)'라고도 하는데, 이는 다라니의 한자식 표기이다. 총지의 의미는 '지혜(智慧)' 또는 '삼매(三昧)'를 뜻하며, 이를 '진언(眞言)'으로 말한다. 진언은 범어를 번역하지 않고 음 그대로를 적어서 외우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는 이유는 원문 전체의 뜻이 한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과, 밀어(密語)라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려는 숨은 뜻이 있다. 밀교에서는 주다라니(呪陀羅尼)라 하여, 재난을 없애는 힘이 있다고 하여 수지 독송하거나 불탑 또는 불상에 납입하였다.

이러한 「범서총지집」은 고려초기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판각 인출하여 불복에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의 불상에서 발견 보고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으며, 그밖에 실물을 확인되지 않은 4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梵書摠持集」의 '譯者表示' 有無

순위	판각연대	경 제	역자표시	소장자
01	庚午(1150)년	大毘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一乘諸經所說一切秘密陀羅尼	無	안동 보광사
02	正隆1(1156)년	大毘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無	해인사
03	丙戌(1166)년	大毘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無	위덕대
04	貞祐6(1218)년	大日經等一代聖教諸經中所說一切秘密陀羅尼	無	연세대
05	1228년	-	無	화성 봉림사
06	13세기	大毘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無	위덕대
07	1302년	大毘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無	은양민속박물관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범서총지집」을 열거한 것 외에도 이와 유사한 자료들이 다수 출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소재는 불명하다.

그러나 「범서총지집」 다라니는 권수에 다라니명칭이 보일 뿐 어디에도 역자표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형식으로 보아 대체로 다라니에는 본래부터 역자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佛頂心陀羅尼經」

이 「불정심다라니경」은 고려초기로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판각 인출하여 불복에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의 불복장에서 발견 보고된 대표적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표 3> 「佛頂心陀羅尼經」의 「譯者表示」有無

순위	板刻年代	經題	譯者表示	소장자
01	1219년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無	국립중앙박물관
02	13세기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無	화성 봉림사
03	14세기	佛頂心陀羅尼經	無	해인사
04	14세기	佛頂心陀羅尼經	無	공인박물관
05	洪熙1(1425)년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無	공인박물관
06	1485년	佛頂心陀羅尼經	無	호림박물관

위 6종의 권수부분을 조사해 보니 모두 경명만 보일 뿐, 경명의 다음 행에는 역자표시 없이 바로 경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조선시대에 사찰에서 수차 간행되었으며, 또한 이를 언해한 판본도 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소형 권자본 형태가 아닌 선장의 책자형태로 되어 있으나, 모두 권수에 역자표시는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다라니는 의례적으로 역자를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궁오층석탑에서 출토된 7세기 전반의 「백제금지사경」은 물론 호암미술관의 「신라백지묵서사경」, 신라하대에 간행된 「진분화엄경」, 그리고 고려 1007년에 간행된 총지사관 「보협인다라니경」을 비롯하여 「범서총지집」 등 다수의 다라니경에는 권수의 경명 다음 행에서 ‘역자표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고대 사경 및 판본류의 권수에 나타난 경제의 기재 형식으로 보아, 본래 석가탑본 「무구정광경」에는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에 보이는 ‘唐天竺三藏彌陀山奉詔譯’이란 역자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무구정광경」은 석가탑이 건립되기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 4. 結論 및 提言

이상에서 석가탑 출토의 「무구정광경」의 복원을 위한 각판방식과 권수부분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지난 1989년 전면적인 보존처리를 실시한 보수현상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 전후의 실물자료의 실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각판 방식은 최근 발견된 보광사본 「보협인다라니경」의 인출상태를 근거로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대략 길이 60cm, 넓이 30cm 정도의 목판 2판이 소용될 것이며, 경판의 앞뒤로 각각 3면씩 모두 12면을 판각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2) 역자 표시는 「무구정광경」이 석가탑에서 수습된 이래 많은 연구자에 의해 이 경의 형태적 특징을 언급하면서 대부분 ‘譯者名’ 또는 ‘漢譯者名’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국내 전본의 왕궁탑본 「金紙金剛經」 등 4종과 다라니경 2종의 실물자료의 실례를 살펴본 결과, 이 불경에는 본래부터 ‘譯者表示’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서체(書體)와 종이에 대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는데, 서체는 현전본에서 집자(集字)하여 서체사전을 만들어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종이는 지질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장 유사한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면 좋을 듯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구정광경」의 경판을 복원하여 이를 인쇄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만일 필자가 제안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원형에 근접한 복원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근래 우리 주변에서는 고려대장경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 조선활자, 화엄석경 등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선조가 남겨 준 훌륭한 문화유산을 재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생각해 볼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과연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 선조가 물려준 창의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우수한 새로운 문화유산을 창출하는 데 더욱 투자

를 해야 하는 것이 보다 바른 방향은 아닐까 하여 첨언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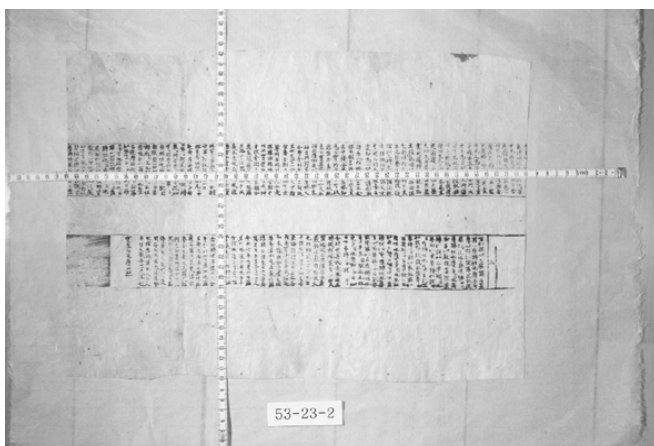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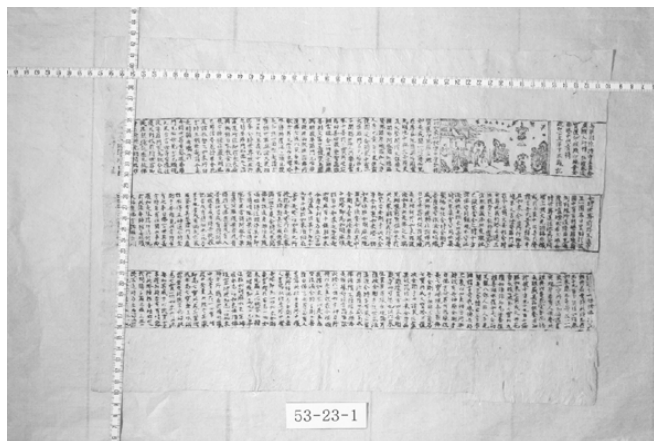
### <참고문헌>

- 文化財管理局. 「佛國寺釋迦塔內發見遺物調査報告書」. 서울: 文化財管理局, 1966.
- 李弘植. “慶州佛國寺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4(1968).
- 金斗種.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3.
- 千惠鳳. “高麗初期 刊行의 寶篋印陀羅尼經.” 「圖書館學報 (서울: 중앙대 도서관학과) 第2輯(1973).
- 朴相國. 「世界最古印刷物無垢淨光大陀羅尼經解說」. 서울: 東國大學校, 1986.
- 석가탑 발견 陀羅尼經復元. 박물관신문 1989년 3월 1일
- 沈喆俊.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年推定에 관한 論難, 書誌學의 諸問題, 서울: 蕙辰書館, 1995.
- 鄭永鎬, 秦弘燮, 黃壽永. 「佛國寺三層石塔舍利具와 文武大王海中陵」,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세계인쇄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포럼」, 동 연구원, 1999.
- 千惠鳳. “新羅木板卷子本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考證問題.” 「書誌學研究」 제18집(1999).
- 朴相國.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刊行에 대해서, 文化財 제3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金聖洙.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0.
- 鄭在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제7집(2001).
- 宋日基. 「智異山 華嚴寺와 華嚴經」. 전남대박물관, 2002.

- 宋日基. “五臺山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出土 「全身舍利經」의 考察.”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 宋日基. “古代 동아시아 書籍의 卷頭事項 變遷考.” 「文獻情報學報」 제6집(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회, 2003. 11).
- 宋日基. “益山 王宮塔 出土 <百濟金紙角筆 金剛寫經>의 研究.” 「馬韓·百濟文化」 제16집(2004. 12).
- 宋日基. “京都 青蓮院藏 《觀世音應驗記》所收 <百濟記事>의 檢討.” 「書誌學研究」 제30집(2005. 6).
- 李丞宰. 「50卷本 華嚴經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서병패. 「安東 普光寺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典籍 研究」. 聖寶 제10호, 2008.
- 불국사석가답유물 2: 重修文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9.

<사진자료>

1) 보광사 보협인다라니경



2) 성암본 진본화엄경 권20



3) 공인박물관 불정존승다라니경

